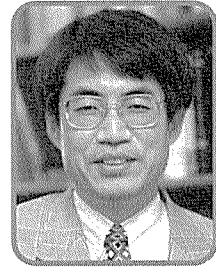


안동도서관에서의 과학 강연

(2004. 10. 5. 경북안동도서관)



이덕환*

안동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내 고향이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과학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안동을 선택한 것은 나에게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사실 그동안 몇 차례 해보았던 과학 강연은 그리 성공적인 경험은 아니었다. 과학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골치 아픈' 과학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코미디언처럼 온갖 몸짓과 재미있는 농담으로 청중의 관심을 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나에게서 더욱 그렇다. 설사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강연은 결국 과학의 본질을 왜곡해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연에 나서기는 하지만 쓸쓸한 뒷맛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간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고 출발했다.

안동에서의 내 강연은 낙동강변에 자리잡은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이 작년부터 시작했다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벌인 축제의 첫 마당이었다. 100명 정도의 좌석이 마련된 지하의 작은 시청각실에는 아기를 안은 주부가 대부분이었고, 연로하신 어른들도 있었다. 잠시도 쉬지 않고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강연은 지금까지 해보았던 일반 강연 중에서 단연 최고의 성공이었다. 그야말로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없었고, 조는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마도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왔다는 내 소개가 큰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었다.

이번 강연은 안동도서관 담당자의 요청으로 내가 번역했던 『거의 모든 것의 역사』(벨브라이슨 지음, 까치, 2003)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었다. 과학의 특별한 성과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우리 주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담담하게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워낙 방대한 양의 책이라서 몇 가지만 추리려고 노력했지만,

*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duckhwan@sogang.ac.kr, 『거의 모든 것의 역사』, 『확실성의 종말』, 『갈기도 하고, 아니 갈기도 하고』 등

역시 이번에도 강연 내용이 너무 많았던 모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탄생에서 시작해서, 태양계와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서, 생물과 인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내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청중에게 감사하고 싶다. 처음 준비한 강연이었지만,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서 인체로부터 시작해서 생물계와 지구, 태양계, 우주의 순서로 소개하는 것이 더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번 강연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 삶의 보금자리인 자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 겨우 수백 년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은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밝혀진 것임을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과학의 성과에 대해서 일방적인 홍보로 채워지기 마련인 보통의 과학 강연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청중이 실망하지 않을까 했었던 걱정은 처음부터 괜한 것이었다.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고, 그 속에 별과 은하가 몇 개나 있으며, 태양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는 소행성 벨트, 혜성이 출발하는 쿠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을 소개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구의 내부에 대한 소개와 특히 외핵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온천과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게 되고, 생명이 번성하는 아름다운 푸른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흥미를 끌었던 것 같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속에 들어 있으면서 아직도 그 신비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유전 물질인 DNA가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는 설명에도 많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표시하는 백발의 노인이 나에게 강연의 흥을 한껏 돋워주는 힘이 되었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기획한 이번 '도서관에서 과학자를 만나다'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독특한 것이었다. 우선 그 대상이 성인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지금까지의 과학 강연은 대부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체육관이나 강당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학생들은 정말 설득하기 어려운 청중이다. 그런 학생들에게 과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원해서 그런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니므로 매우 산만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경험했듯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인들의 경우에는 동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뛰어나서 불필요한 몸짓이나 농담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지방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아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결코 많지 않은 장서를 이용하거나 주변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단순한 기능으로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문화 생활이 어려운 지방 도시의 경우에는 과학 강연을 비롯한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생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행사에 '과학'이 선택되었다는 사실도 우리 사회의 발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오늘날의 삶은 과학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도서관이 과학 대중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강연이 성공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마도 안동의 경우처럼 과학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청중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 강연을 대규모 행사로 기획하는 것

보다는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과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행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백 명을 넘어가는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고, 그런 재능을 가진 과학자는 우리 사회에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청중을 동원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소규모의 강연이라도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과학 강연의 내용에 대한 기획도 필요하다. 그 지역의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의 강연이 호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자동차 혼잡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중소도시에서 외국의 도시 계획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경우가 그런 예가 될 수 있다. 과학이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과학을 응용한 기술의 경우에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서 주제가 선택되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과학 강연을 기획하는 입장에서 먼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연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획자는 강연자가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번 안동의 경우처럼 지역 도서관의 담당자가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강연자와 강연 내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강연의 경험이 많지 않은 강연자에게는 사업의 목적과 도서관 과학 강연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강연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어떤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이게 될 것인가이다. 그리고 몇몇 특별한 전공을 제외하면 과학자의 세부 전공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도 알려주는 것이 좋다. 결국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유능한 과학 강연자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셈이다. 비록 처음부터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과학 강연의 기회를 자주 제공해주는 것이 도서관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길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의 순회대사' 프로젝트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www.bookreader.or.kr)이 2004년도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 각지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창조적 재능을 대표하는 작가, 저술가, 교육자들을 직접 만나봄으로써 문학의 다양한 가치들을 체득함과 동시에 문학예술에 대한 애정과 이해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문예진흥원의 지원과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의 자체 재원으로 2004년 10월 말 현재 7개 지역 73개의 도서관을 찾아 각 지역 주민, 청소년, 어린이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40여회 실시되었다.